

# 우리가 몰랐던 '분변' ... 그 은밀한 주제를 파고 들다



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진지하게

로즈 조지 지음, 하인해 옮김

다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달린 문에서 행해지며 말하기 거북스럽다. 완곡하게 표현해야 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이것을 한다. 바로 배변이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좀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똥과 오줌을 누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배변에 대한 언급은 터부시된다.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활동임에도 드러내기 쉽지 않다. 그러나 인간의 삶 대부분의 영역에서 배변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분변과 화장실에 대한 주제를 다룬 책이 발견됐다. '더 네이션' 기자로 활동했던 논픽션 작가 로즈 조지가 펴낸 '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진지하게'는 은밀한 주제인 '똥'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책은 세계보건기구 WHO 필독서로 선정됐으며 '이코노미스트' 올해의 책에 뽑힐 만큼 인정을 받았다.

저자는 배변을 인간의 어떤 본성보다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본다. 책을 쓰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섭렵하고 세계의 도시를 방문해 위

생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실무를 확인했다.

인도의 지도자 간디는 조국의 독립 못지않게 위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화장실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프로이트는 분변학이 필요한 학문이라고 역설했으며 작가인 안토 체호프는 러시아 사할린 섬의 비참한 위생 상태를 기록했다. 노벨상 수상 작가인 영국의 러디어드 키플링은 하수도에 관심을 가진 나머지 틈틈이 배수관에 대해 공부했다.

사실 현대의 도시를 정의하는 핵심 항목 중 하나는 '하수 체계가 갖추어진 도시'다. 인간과 배설물 간의 접촉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위생도시'가 현대적 도시로 인정받는다. 분변에 대한 태도는 문명의 척도이자 한 사회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4년 서울을 방문한 뒤 이런 기록을 남겼다. "한양은 세계에서 배이징 다음으로 가장 더러운 도시다. 거리는 사람의 분변과 지독한 악취로 가득하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의 공기를 제외한 사대문 주변이 똥밭이었다. 1970년대 중반까지도 우리의 하수도 보급률은 30~50%에 그쳤고 80년대 들어 하수 설비가 갖춰졌다.

현재 세계 약 20억 명이 최소한의 위생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15초마다 어린이 한 명이 설사병으로 죽는다. 선진국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질병이 위생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매년 약 220만 명



의 목숨을 잃게 하는 요인이다.

게리 루브론 하버드대 유전학 교수는 화장실이야말로 수명을 늘리는 절대적 요인이라고 강조한다. 빈민국 주민들이 깨끗한 화장실만 사용해도 평균 수명이 20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사회심리적으로 중요한 주제인 똥, 이것과 연관된 공중화장실, 수세식 변기는 그 자체로 흥미롭고 이채롭다. 그러나 21세기 현재에도 공중화장실 구조는 대체로 플라스틱 재질 칸막이 하나로만 이루어진 실정이다. '청각 사생활'까지 완전히 보호하는 칸막이가 없는데, 그만큼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는 가정(사회적 약속)을 바탕으로 한다.

그럼에도 화장실은 인류 최고의 발명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포커스'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세식 변기는 역대 최고의 발명품 1위에 뽑혔다. 상수도만큼 하수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저자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하수의 90%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바다와 강으로 흘러간다고 본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도 우선 시에 미치지 못하는 호수나 바다로 흘러보내려는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저자의 관점과 주장에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 기능과 그 기능을 다루는 방식은 모든 곳에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들은 하수도와 도시의 관계처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우리의 발밑과 같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카리칼·1만6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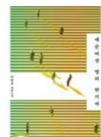


배변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 기능과 직결된 행위로 다양한 삶의 영역과 연관돼 있다.

## 예술여섯 명의 한기씨

## 이만교 지음

이만교 작가 하면 떠오르는 소설이 '결혼은 미친 짓이다'이다. 그의 첫 번째 장편이자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 소설은 결혼과 사랑에 대한 숙물주의와 경직된 엄숙주의를 풍자했다. 다른 장편 '머피네 집에 놀러올래?'에서는 IMF 사태 이후 한국사회 어두운 일면을 가족사에 빚대 생생하게 보여줬다.



이번에 이만교가 신작 장편 '예술여섯 명의 한기씨'를 펴냈다. '아 이들은 웃음을 참지 못한다' 이후 16년 만에 선보이는 네 번째 장편 소설은 '유산 상속'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모티브로 한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판에서 일하던 대학생 한기씨는 도박꾼들에게 걸려들어 돈을 탕진한다. 시급이 센 알바를 찾던 중 파업현장에서 용역으로 일을 하게 된다. 성실한 한기씨를 눈여겨본 탐장의 알선으로 그는 국수집을 열게 된다. 가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곧이어 재개발이 시행되고, 가게를 빼앗기다시피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한기씨는 다른 세입자들과 연대해 조합과 시공사, 용역업체에 맞서게 되고 점차 과격하게 변해간다. 대책위 사무실에 들이닥친 철거 용역과 싸우기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용역업체 사람들과 맞서 자해를 하기도 한다.

소설에는 평생 일궈온 터전을 헐값에 넘겨야 하는 세입자들과 대책위를 만들어 회비를 뜯어가는 지역 건달들,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철거를 강행하려는 정비업체 용역 등 다양한 주체가 등장한다. 제마다 처한 사회적, 경제적 위치에 따라 연행이 달라지는 양상은 물론 재개발사업과 사회구조의 불합리성이 적나라하게 펼쳐진다. 서사적 긴장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속도감 있는 문장이 읽는 맛을 더해준다.

<문학동네·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

## 이범현 지음

우리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를'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으로 '문화예술 향유권과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문화향유권이 헌법에 규정돼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문화향유권의 기본 전제는 '예술인 복지'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왜 '예술인 복지'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화가인 이범현 문화예술정책가가 펴낸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는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정책들을 제안한다.

저자는 열악한 문화예술 창작환경을 바꾸는 것이 향유자인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복합 문화예술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한 달에 한두 번은 미술관에 가고 공연장에 들러 음악도 감상하는, 문화와 예술로 휴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는 얘기다.

또한 예술인도 노동자라는 인식하에 문화예술인 노동조합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문화예술인 내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미술계를 넘어 문화예술 각 분야의 만남과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미의 성장 동력인 기초문화예술에 대한 지원과 육성의 필요성을 들 수 있다. 20세기까지 군사력이 지배하던 부국강병의 시대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문화강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로 변했다. 우리의 대중문화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초문화예술 영역의 한류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는 문화예술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민·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다산이요

## 김형섭 지음

다산 정약용(1762~1836)은 조선시대가 낳은 최고의 학자이자 개혁가다. 1907년 초등교육용 교과서 '유년필독(幼年必讀)'에는 "우리나라 500년 제일의 경제가이자 서양 문명에 뒤지지 않는 학자"로 소개됐다.



또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36년, 정인보, 최익한 등이 중심이 되어 민족정신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학술 사업을 펼치면서 다산은 본격적으로 조명을 받았다. 그 후 8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정약용에 대한 연구 논문과 저서 등은 1만 5000편이 넘게 나왔고 오늘날 다시 살리고 싶은 역사 인물로 다산을 첫손으로 꼽을 정도로 그의 개혁 사상이나 실천적 학문에 대한 관심도 높다.

다산 정약용의 유배 18년 동안 움직인 시간과 공간을 따라가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일기식으로 엮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다산이요'가 출간됐다.

남양주시립박물관 학예사로 재직중인 저자 김형섭은 다산이 유배가기 전 정조의 죽음과 함께 낙향했다가 신유옥사(辛酉獄事)로 잡혀 옥고를 치르는 때부터 강진에서 해배(解配)돼 다신계(茶神契)를 맺고 고향으로 올라올 때까지의 궤적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저자가 다산의 생애 중에서 유배 시절을 주목한 것은 이때에 중요한 학문적 업적이 이루어졌고,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던 탓에 인간적 면모가 절절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책은 정약용이 주류 사회의 낯은 이념을 대체하고 미래 대안을 찾아가는 위대한 선각자로 변해가는 과정과 내면의 변화를 보여준다.

<산처럼·2만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